

정신질환인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시급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그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Mental Illness)을 다루는 데 있어 '배제와 격리'의 관습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식을 고수해왔다.

배제는 특정 집단(장애인, 감염병 환자 등)을 교육, 사회, 공공장소 등에서 의도적으로 분리하거나 소외시키는 행위이며, 격리는 감염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타인과 물리적 거리를 두고 격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정신질환인들은 사회적 낙인(Stigma) 속에서 비인격화되었고, 증상이 발현되면 정신병원과 같은 시설 수용 중심의 대응이 이뤄졌다. 특히 비자발적 입원의 높은 비율은 인권 단계로부터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깊은 외상(Trauma)과 고통을 경험했고, 지역사회와 격리된 정신병원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현대 사회에서, 질병을 겪는 이들을 단순히 격리하여 문제를 은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중국에는 고독사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정신질환인에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근간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8%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했을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는 보편적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일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미 중증 정신질환인들을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극심한 우울증 환자나 고립·은둔의 대상자와 같은 초기 개입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방적 돌봄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만의 영역이 아닌, 전 부처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주거, 고용, 재활 등 관련 부처가 역할을 통합하는 적극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한 개선 방안은 집과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대대적인 확대이다. 특히 '재가(在家)' 중심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충이 핵심이다. 단순히 치료를 넘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주고, 기본적인 가사 서비스 지원부터 산책, 동행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여,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합돌봄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AI는 깔렸는데, 돈은 안 된다



기지 수첩
최 빛 나 (IT부)

국내 IT 업계에서 인공지능(AI)은 이미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검색과 메신저, 콘텐츠 추천과 광고 시스템까지 주요 서비스 전반에 AI가 적용되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에 AI 요약과 추천 기능을 확대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콘텐츠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반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AI가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 기본 옵션이 된 상황이다.

다만 AI 확산 속도와 달리 수익화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AI 도입 이후 사용자 경험과 체류 시간 개선 효과는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매출 구조 자체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업계에서는 AI 전환이 단기간에 실적 개선으로 직결되기보다는 중장기 경쟁력 확보 차원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전략은 공통적으로 기존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색 정확도 개선, 대화형 서비스 고도화, 콘텐츠 추천 효율 제고 등을 통해 이용자 이탈을 막고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필수적인 선택이지만, 광고 단가 인상이나 신규 유료 서비스 확대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수익화가 더딘 이유로는 서비스 구조 자체가 지목된다. 현재 제공되는 AI 기능의 상당수는 무료이거나 기존 서비스에 포함된 형태다.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AI는 매출 창출 수단이라기보다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AI 모델 고도화와 서버 운영, 인프라 투자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사업 모델 차이도 뚜렷하다. 오픈AI와 구글은 API 사용료나 구독 기반 모델을 통해 AI 자체를 상품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광고와 콘텐츠 유통 중심의 간접 수익 구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기술 확보 이후 이를 어떻게 비즈니스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IT 업계의 과제는 명확해지고 있다. AI를 도입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AI로 어떤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기업용 솔루션, 유료 기능, 데이터 기반 서비스 등으로 확장하지 못한다면 AI 투자는 장기적인 비용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AI는 이미 깔렸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한국 IT 기업들에 AI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고정비가 될 것인가.

/vitn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17일 (음 10월 28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속세를 떠나면 할 일은 더욱더 많아 더 부지런해야 할 것. 48년생 명쾌하고 산뜻한 하루. 60년생 뒷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도리. 72년생 두루 배풀면 오후에 일이 순조롭게 해결. 84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나가야 할 터.	
 소	37년생 직장에 이동수가 있으나 마음을 잡자. 49년생 붉은색이 행운을. 61년생 서류를 이치에 맞게 잘 작성하니 성과도 두 배다. 73년생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85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건강도 평온하다.	
 호랑이	38년생 치과 진료를 늦추지 말고 낱을 잡도록. 50년생 새로운 유행에 관심을 둔다. 62년생 상사의 의견에 토를 달기보다는 소통을 해라. 74년생 누구나 태어나면 한번 죽는데 허망하게 가지 않도록. 86년생 배우자의 의견존중.	
 토끼	39년생 식탐을 줄여보면 병원 다니지 않아도 될 듯. 51년생 상금을 타서 부모님께 돌려간다. 63년생 머리가 아프나 오후에 일이 해결되어 감사함. 75년생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 한탄. 87년생 남쪽에서 귀인이오니 거래가 성사.	
 용	40년생 구설에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52년생 업무량이 많다면 쉬운 일부터 해 나가보라. 64년생 본수에 맞게 물류를 가져오라. 76년생 일은 말보다는 문서로 해야 신속 정확. 88년생 봉사는 항상 기본 마음으로.	
 뱀	41년생 이제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열심히 노를 저을 때. 53년생 막혔던 업무가 해결되는 날이라 감사. 65년생 금전 문제로 종일토록 우울하다. 77년생 외출하여 직접 부딪쳐 추진하면 소득이. 89년생 정신우장을 더 단단하게.	
 말	42년생 고생한 성과가 좋아 재물이 들어온다. 54년생 참외밭을 지날 때 신을 고쳐 신지 마라. 66년생 시기상조라 인내심을. 78년생 여행이나 등산을 하기에는 일진이 신통치 않다. 90년생 일이 계속 막히니 집안 하수구를 살펴보자.	
 양	43년생 신념을 가지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55년생 잠재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67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주의. 79년생 재산 나눠주고 가족끼리 동병상련(同病相憐). 91년생 모여서 소란스럽다.	
 원숭이	44년생 구름이 하늘을 덮으니 일이 늦어진다. 56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68년생 부모의 이혼을 막도록. 80년생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서 지출을 해라. 92년생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이득이 나도록.	
 닭	45년생 업무의 능력으로 월말 결산에 이득이 발생. 57년생 보유한 산에 길이나니 모두다 조상님 은덕이다. 69년생 공부가 싫다면 기술을 연마해야. 81년생 의지할 데 없는 신세. 93년생 고생은 모르지만 남과 같이 협조하니 복이 온다.	
 개	46년생 매화를 아내로 삼고 풍요롭다. 58년생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를 지켜보라. 70년생 일이 순조롭다. 82년생 바쁜 가운데 한가한 틈을 내 농업인의 공부를. 94년생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죽은 말의 뼈다귀를 산다는 표현이 있다.	
 돼지	47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신중. 59년생 오후에 거래 계약. 71년생 일에 파묻혀 정신이 없다. 83년생 옛날에 큰 영화를 누렸으나 부도난 상태에 무슨 소용. 95년생 남이 싫어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을 버려야.	



김상회의四季 노년의 품격과 관상

사람의 얼굴은 나이와 함께 변한다. 젊은 시절에는 생기가 담겨 있고, 중년에는 표정이 얼굴을 만들며, 노년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그대로 드러난다. 얼굴의 변화는 한 사람의 기운 마음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래서 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노년에 얼굴이 편안한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한다. 젊은 얼굴이 타고난 운이라면 노년의 얼굴은 만들어진 운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의 얼굴은 자신이 만든 얼굴이라는 뜻이다. 노년에 고요하고 부드럽게 보이는 얼굴은 그동안의 경험과 감정이 오랜 세월 쌓이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관상이란 타고난 운명보다 살아오며 만들어진 습관과 마음의 흔적이기도 하다. 노년의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단연 눈이다.

눈에 기가 없으면 생명력을 잃은 관상으로 평가한다. 눈빛, 즉 신광이 흐려지지 않고 은은하게 살아있으면 노년에 더 품격있어 보인다. 맑고 따뜻한 눈빛은 평생을 올곧게 살았으며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노년에 눈 밑 와잠 부위가 너무 검거나 푹 꺼지지 않고 어느 정도 탄력을 유지하면 말년의 건강과 행복한 자손운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둥글고 두터운 턱은 말년의 복이다. 턱은 말년운과 노후의 편안함을 총체적으로 상징한다. 둥글고 두툼하며 양쪽으로 살이 붙은 턱은 노년에 안정감 있는 생활을 암시한다. 넉넉하고 후덕해 보이는 턱은 평생 모든 재물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며 자손들과의 관계도 화목함을 암시하는 좋은 말년 관상이다. 노년의 관상에서 중요한 건 다른 무엇보다 마음 씀씀이다. 사람들은 좋은 관상을 가지려면 얼굴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상의 관점에서 보면 얼굴보다마음이 먼저, 욕심을 줄이면 턱과 입이 안정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1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91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3				6
					8		1
		3		6		8	
	3						2
		2				6	
6							1
		7		4		1	
9			1				
5				3		9	4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2	8	1	9	9
2	8	9	1	2	6
9	1	6	2	2	8
8	1	6	2	9	2
8	2	9	6	8	2
2	9	1	2	9	6
6	2	8	2	9	1
1	2	8	2	6	9
9	2	9	1	8	6

9	8	2	8	1	2	9	6	2
1	2	8	9	6	2	9	8	2
8	6	9	2	9	8	2	1	
2	9	1	6	9	8	2	8	
8	1	9	2	9	2	9	6	
2	9	6	2	8	8	1	2	9
9	9	8	2	8	6	1	2	
2	1	2	6	8	2	9	8	9
6	2	8	9	1	2	8	2	